



친정 떠나겠다는 메시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33·아르헨티나)가 소속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가운데 차기 행선지로 4팀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 BBC 등 복수의 현지 매체들은 26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공격수 메시가 구단에 이적 요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보도했다.

메시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서 2-8 참패를 당한 뒤 이적을 결심하고 최근 구단에 팩스로 이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셀로나는 2007~2008시즌 이후 12년 만에 우승 타이틀 없는 무관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상 스페인 리그 종료 시점에 이적 의사를 밝히면 바이아웃 조항(최소 이적료)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팀을 떠날 계획이다.

차기 행선지는 어디로?

소속팀 바르셀로나에 팩스로 이적 요청서 제출
PSG·인터밀란·맨시티·맨유 등 4팀 거론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메시와의 계약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며, 다른 클럽으로 가려면 7억유로(약 9832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 현지에선 ‘메시의 이적 시도로 구단과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1조원에 달하는 이적료를 지불할 팀은 사실상 없다”라고 전했다.

2000년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한 메시는 20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뛰면서 스페인 정규리그 우승 10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4회 등을 차지한 레전드다. 또 바르셀로나에서만 발롱도

르를 6차례 수상했다. 하지만 메시가 구단에 이적 요청서를 보내면서 울며 겨자 먹기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태다.

차기 행선지로는 파리생제르맹(PSG·프랑스), 인터밀란(이탈리아),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상 잉글랜드) 등 4팀이 꼽힌다.

스페인 매체 온다 세로 라디오는 메시의 천문학적인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구단으로 이들을 언급했다.

뮌헨에 저 아쉽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놓친 PSG는 메시를 통해 다시 한번 유럽 정복 목표를 낼 수 있다. 인터밀란은 오래전부터 메시 영입에 관심을 보인 클럽 중 하나다.

맨시티는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사제 관계였던 펠 프라디올라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으며, 맨유 역시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메시를 데려올 수 있다. /뉴시스

KPGA 선수들 ‘코로나19 OUT’

‘27일부터 30일까지 무관중 경기’
헤지스골프 오픈 개막 하루 앞두고
선수 6명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헤지스골프 KPGA오픈 with 일동레이크골프클럽(총상금 5억원, 우승상금 1억원) 개막을 하루 앞둔 26일 대회장인 경기 포천 소재 일동레이크골프클럽 연습그린에서 KPGA 코리아 투어 주요 선수 6명이 참가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펼쳐졌다.

이날 캠페인에는 제63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우승자 김성현(22), 2019년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 문경준(38), 2020시즌 KPGA 오픈 with 슬라그CC 우승자 이수민(27), KPGA 코리아투어 3승의 이태희(36), ‘뉴시운 스윙’으로 유명한 최호성(47), 2019년 SK telecom OPEN 챔피언 함정우(26) 등이 참여했다.

선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약 98cm 길이의 7번 아이언을 활용해 2m 이상 거리두기를 표현한 데 이어 ‘뽀뽀 두 클럽 이상, 마음은 가

깝게, 코로나19 OUT’이라는 문구를 들고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문경준은 “코로나19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돼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태희는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데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게 계시는 의료진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헤지스골프 KPGA오픈 with 일동레이크골프클럽은 올해 신설된 대회로 총 156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대회 주최 및 주관사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참가 선수 및 대회 관계자들의 안전 관리를 위한 철저한 방역 시스템과 신속 대응이 가능한 TFT를 구성하는 등 코로나19 없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뉴시스



26일 경기 포천 소재 일동레이크골프클럽 연습그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KPGA 코리아투어 주요 선수들.

전북체육회,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

10월 14~16일 신청접수... 주 40시간 이상 운영 가능 시설 확보돼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가 학교연계형(한중목) 스포츠클럽 2차 선정을 위한 공모에 나섰다.

공고기간은 오는 10월 16일까지며, 접수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간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지역 공공·학교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의 회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신청 조건은 주 6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또 전체 회원 목표 달성 및 유·청소년 회원

비율이 50% 이상 유지돼야 하며, 수준별(취미반·심화반·선수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의 경우 기존 스포츠클럽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단, 동일 종목 운영할 경우 기존 스포츠클럽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신청 되면 클럽당 5년간 8,000만원씩 총 4억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체육회 여가스포츠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2도움 맹활약’ 전북 김진수, K리그1 17라운드 MVP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 측면 수비수 김진수가 17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김진수가 하나원큐 K리그1 2020 17라운드 MVP 뽑혔다”라고 26일 밝혔다. 김진수는 지난 23일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팀의 두 골을 모두 어시스트하며 2-1 승리를 견인했다.

전반 2분에는 상대 페널티박스 측면 침투 후 날카로운 크로스로 신에 공격수 이성운

의 데뷔골이자 이날 선제골을 도왔고, 1-1 상황이던 후반 42분에는 정확한 크로스로 구스타보의 극적인 결승골을 만들었다.

김진수 활약에 전북은 상주를 꺾고 최근 5연승 신바람 행진을 달렸다.

김진수는 이날 도움 2개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K리그1 주간 베스트11에는 공격수에 주니오(울산), 구스타보(전북), 이정협(부산)이



(부산)다.

K리그1 베스트11에는 전북이고, 베스트매치 역시 전북과 상주의 경기가 뽑혔다. /뉴시스

올랐고 미드필더에는 나상호(성남), 송시우(인천), 박종우(부산), 이광혁(포항)이 뽑혔다.

수비수에는 김진수와 함께 오반석(인천), 강민수(부산)가 자리했다. 골키퍼는 최필수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전주매일 캠페인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